

S지역 중학생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Reading Cultur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 Region

허 정 희 (Jeong-Hee Heo)*

윤 주 희 (Ju Hee Yun)**

< 목 차 >

I. 서론	V.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분석
II. 이론적 배경	VI. 중학생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III. 국민독서실태와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 비교·분석	VII. 결론 및 제언
IV.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조사 분석	

요약: 본 연구는 국민독서실태조사(2021)를 바탕으로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독서문화 조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2년 7월 5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2주간 S지역 중학생 695명을 대상으로 독서실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민독서실태와 비교 분석하여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독서문화 활성화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독서량을 향상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둘째,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학교도서관과 학생과의 소통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중학생 대상의 다양한 독서 지도, 독서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

주제어: 국민독서실태조사, 중학생, 독서문화, 독서문화 활성화, 학교도서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ading statu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 region based on the national reading survey in 2021 and to suggest a plan to promote the creation of a reading culture. To this end, we conducted a reading survey of 695 middle school students in S region for two weeks from July 5, 2022 to July 19, 2022.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reading survey, problems in the reading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 region were identified, and the necessity and plan for revitalizing the reading culture were presented. The measures to activate the reading culture are as follows. First, a method to improve middle school students' reading volume was sought. Second, various ways to activate reading clubs were suggested. Third,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the one-book reading program per semester was suggested. Fourth, a communication plan between the school library and students was presented. Fifth, the need for various reading guidance and reading programs for middle school students was recognized.

KEYWORDS: National Reading Survey, Middle School Student, Reading Culture, Revitalization of Reading Culture, School Library

* 남수원중학교 사서교사(her3430@naver.com) (제1저자)

** 동수원중학교 사서(lonelytree@naver.com)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3월 16일 • 최초심사: 2023년 3월 17일 • 게재확정: 2023년 3월 2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1), 241-268,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1.202303.241>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독서는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분석, 종합, 추론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사고 과정이다(손정표, 2018, 14). 따라서 책과 만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여 마음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독서 인격을 완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중학생은 어른도 아이도 아닌 과도기의 시기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환경 속에서 진로와 학업에 전념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중학교에서는 인지적, 정서적 영역을 확장하고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여 읽고 생각하는 독서를 통하여 내면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도 다각도로 독서준비도(Reading Readiness)를 파악하고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독서 행사와 독서교육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연간 종합 독서율은 2019년보다 0.7% 감소하였고, 연간 종합 독서량은 34.4권으로 나타났다. 초등은 연간 66.6권, 중등은 23.5권, 고등은 12.6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 독서량에 비하여 중등 독서량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교과 공부 외의 다양한 이유로 독서정체기로 접어들면서 이 시기의 독서는 그대로 고등으로 이어져 20대 이후에 계속 추락하여 현재 성인 평균 독서량인 4.8권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학생 45.8%가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량을 증가시킬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우리는 중학생부터 나타난 독서인구의 감소와 탈(脫)독서 경향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중학교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왜 독서 감소로 이어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초등에서 형성된 독서 습관이 중·고등학교로 그리고 성인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생이 독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독서 지도와 독서 동기를 부여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운영자로서 국민독서실태조사(2021)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독서교육과 도서관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학교 도서관 이용자가 아닌 잠재적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해서 실제 현장에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움 자료 및 근거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최근에는 중학생 대상의 독서실태조사 연구가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통한 중학생의 독서문화, 독서 활성화, 독서 진흥 관련 연구 논문이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독서 활성화 노력은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학생이 자발적 독서가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S지역 중학교 학교도서관 운영자로서 독서 행동을 유발하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여 중학생의 긍정적인 성장을 돕고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맞춤형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국민독서실태조사(2021)를 바탕으로 S지역 중학교 4개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비교·분석하여 독서 동기가 지속되도록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독서 흥미와 독서의 즐거움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는 국민독서실태조사(2021)를 바탕으로 S지역 중학교(4개교)의 독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교·분석하고 중학생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국민독서실태조사와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독서실태 영역의 조사 내용 중 S지역 중학교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에 적합한 독서실태 파악을 위해 설문지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둘째, 2022년 7월 5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2주간 S지역 중학생 695명을 대상으로 중학생 독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민독서실태조사(2021)에서 중학생 부문과 S지역의 2022년 중학생 독서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중학생 독서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학생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민독서실태를 바탕으로 경기도 S지역 4개교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실태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중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그동안 저조했던 중학생 독서실태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학생과 학교 교육과정 속 독서, 독서문화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학생의 독서 활성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중학생과 학교 교육과정 속 독서

청소년은 십 대를 일컫는다. 특히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의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장소연, 2019, 5).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변화와 함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아 정체감, 인격 형성, 개성 발달 등 중요한 인간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에는 여러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나인지 혼란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고민이 자아 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자아 개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지각 현상을 말한다(정정애, 2017, 64).

에릭슨은 심리사회발달이론에서 12세 이후의 발달단계를 자아정체성의 혼란기로, 자기 존재 의문에 대한 탐색을 시작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기로 보았다. 또한 프로이트는 성 심리학 발달이론을 통하여 12세 이후의 발달단계를 생식기로 보았다. 이 시기에는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로 성 충동을 수행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이다(장소연, 2019, 9). 이것이 청소년을 질풍노도의 시기로 말하는 이유이다. 특히 사춘기의 절정에 있는 중학생은 혼란스러운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에 놓여있는 시기로 예민하여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자아개념을 구축하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교육과정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 있다(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3).

위의 6가지 역량을 함양하는 방법의 하나가 독서다. 청소년기의 독서는 다양한 간접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발견해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독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인지적 영역과 감정, 가치관, 신념에 중점을 둔 정의적 영역(정옥년, 2007, 139)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생각하는 독서는 사고를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해력(literacy)을 향상시킨다. 독자는 작품을 읽고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기도 하며 그 상황을 상상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추리하며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도 한다. 즉, 사고와 사색을 돕는 작품 속에서 사회성을 키우고 작품 속 인물을 동일시하기도 하고 자아 성찰을 돕기도 한다. 그리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묘사와 뛰어난 문장에서 심미적 감성 역량을 기를 수도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육청 수준의 지원에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읽기 능력 함양을 위해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39). 중학교의 독서는 국어과에서 읽기 영역과 문학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통합형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학년(군) 수준과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책을 긴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서 준비와 독서 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 여건을 조성하고, 읽고, 생각을 나누고, 쓰는 통합적인 독서 활동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59).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서 창의적 주제 활동 내용으로 독서 하기, 동아리 활동 영역의 학술문화 활동으로 독서가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5 개정교육과정, 539-542).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독서문화 활성화

중학생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 스스로 관심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생각하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장려하고 있음에도 중학생의 독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학생이 되면서 평가와 입시 위주의 환경으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상이 되었다. 이 속에서 즐거운 독서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 또한 독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은 인지적 영역에 치중되어 있으며 독자의 개인 경험이나 감정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박미진, 2019, 10).

독서문화진흥을 독려하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현재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추진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개인적 독서를 사회적 독서(함께 읽고 쓰고 토론하고 나누는)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독서로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학교 독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독서로 독서 습관 형성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독서의 즐거움 및 독서 습관 형성에 필요한 독서 활동 지원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문화체육관광부, 2019, 25-26)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교도서관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1학교 1독서동아리, 방과 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독서프로그램, 자유학년제 연계 독서프로그램, 교과와 진로 탐색을 연계한 인문 독서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 2019, 26-27)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각 학교도서관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의 독서 기본계획과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학생 특성에 맞는 독서를 비치하고 독서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자인 사서교사, 사서는 한마음으로 도서관 운영 규정과 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도서를 수서하여 독서 수준에 맞게 적시에 적서를 추천한다. 또한 정보활용교육과 문해력(literacy) 함양을 위해 도서관 활용교육과 함께 독서 동아리(토론, 토의) 외에도 도서관을 친근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독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S지역 중학교의 독서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독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학교도서관 운영자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본 연구는 2022에 발표된 국민독서실태조사(2021)를 바탕으로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를 비교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이에 국민독서실태를 기반으로 독서문화, 독서 활동, 독서 진흥을 위한 연구 중에서 일반 청소년(중학생)을 위한 논문을 고찰하였다. 현재는 2021 국민독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학생의 독서 활성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전은숙(2010)은 중학교 학생의 독서 행태와 독서 환경에 대하여 독서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의 독서 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독서실태, 독서 인식, 독서 환경, 독서교육의 4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이전의 시기임에도 독서실태를 파악하고 충실한 장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독서문화의 중심은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독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 중심·학생 중심의 수업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권은경(2012)은 격하게 감소하는 중학생들의 독서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독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PISA 2009의 읽기 영역 중 독서 태도와 읽기 성적의 상관관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독서 태도와 독서 동기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학생들의 읽기 성적은 높지만, 독서 태도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장서가 풍부한 학교도서관에서 스스로 선택한 책으로 읽을 수 있는 자유 독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독서를 다른 교육적 목적의 수단으로 강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안중덕(2012)은 독서교육 활성화 시범학교 학생과 일반 학교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독서교육 활성화 시범학교인 J중학교와 독서교육 활성화 시범 경험이 전혀 없는 D중학교 대상으로 독서 활동 실태 조사 질문지를 기초 자료로 독서 활동에 관한 질문지를 11개 문항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독서의 목적에서는 현 시범학교의 학생은 자발적인 독서보다 학교의 정책에 의해서 독서를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범학교 학생들은 판타지 소설이나 만화보다 일반소설이나 자기계발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독서실태를 학교 급별로 비교·분석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자로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발표된 논문 수도 적고 장기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독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Ⅲ. 국민독서실태와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 비교·분석

본 연구는 2022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조사 연구한 자료이다.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S지역 4개의 중학교를 대상(695명)으로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민독서실태조사(2021)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민독서실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이가 없거나 문제를 다루지 않은 조사 내용은 제외하였다. S지역 4개교의 중학생 조사 대상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별	A중학교(남녀 각반의 남녀공학)	169	24.3%
	B중학교(남녀 합반의 남녀공학)	178	25.6%
	C중학교(남녀 합반의 남녀공학)	182	26.2%
	D중학교(여자 중학교)	166	23.9%
	Total	695	100%
학년	1학년	238	34.2%
	2학년	232	33.4%
	3학년	225	32.4%
성별	남자	259	37.3%
	여자	436	62.7%

S지역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영역은 6가지로 독서 생활, 독서량과 책의 선택, 독서 환경, 독서 활동·독서동아리 활동·한 학기 한 권 읽기 참여,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 학교에 대한 희망 사항으로 구분된다.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조사는 국민독서실태조사(2021)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본 연구에 적용한 영역 및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민독서실태조사 중학생 부문 영역 및 내용

조사 영역(6)	조사 항목(23)
독서 생활	독서 시간, 전년 대비 독서 시간 변화, 독서 선호도, 독서 장애 요인, 독서의 유용성(5)
독서량과 책의 선택	독서량, 독서 목적, 독서의 계기, 독서 장소,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 도서 선택 시 도움받는 사람, 도서 입수 경로, 독서 분야 선호도(6)
독서 환경	부모님의 책 읽어주기 빈도, 독서 대화, 부모님의 독서 권유, 선생님의 독서 권유, 독서지도방법,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학교도서관 이용 횟수, 학교도서관 이용 이유, 학교도서관 비이용 이유(5)
독서 활동·독서 동아리 활동·한 학기 한 권 읽기	참여 독서 활동, 참여 독서 활동 만족도, 독서 활동 비참여 이유, 참여 희망 독서 활동, 독서동아리 참여 경험, 참여 독서동아리 유형,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 참여 희망 동아리,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참여, 도서 종류, 도서 선정 방식, 책 읽기에 미친 영향(5)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	책 읽는 시간(종이책, 전자책, 웹소설), 독서량, 인터넷서점 이용 횟수, 전자도서관 이용 횟수(독서교육 지원시스템)(1)
학교에 대한 희망 사항	학교도서관 이용, 학급문고, 책 소개와 정보, 독서 방법, 독후활동, 다양한 독서 행사, 독서 시간(1)

1. 독서 생활

S지역 중학교(4개교) 독서 생활을 분석한 결과, 독서 시간은 평일과 주말에 1시간 이하로 책을 보는 학생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일과 주말의 독서 시간이 0분인 학생은 32.7%(평균 259명)로 나타났다.

중학생 경우 독서 선호도 ‘좋아함’이 국민 41.4%, S지역 51.4%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서의 유용성

(국민 80.1%, 지역 69.6%)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독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신호로 사료된다.

독서 장애 요인의 경우 스마트폰보다는 교과 공부로 인해 독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독서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독서와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과의 경우, 교과와 독서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독서 동기를 위한 독서 연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 외 미디어 매체를 독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북트레일러, 북토크 외 다양한 독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 흥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그 외의 잠재적 독서가에 대해서는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아침독서운동, 독서일지, 독서기록장, 독서 달력과 함께 보상·격려를 할 수 있는 표창 및 독서 행사를 학교 풍토에 고려하여 개인별, 분야별 독서 능력을 파악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 외에 S지역 중학생의 독서 생활 실태는 <표 3>과 같다.

<표 3> S지역 중학생의 2022 독서 생활 실태

조사 영역	조사 내용								
국민 독서 시간 (1095명)	평일			휴일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33.5분	31.0분	5.2분	44.0분	48.9분	6.8분			
S지역 독서 시간	평일(695명, 무응답 20명)			휴일(695명, 무응답 22명)					
	0분	1분~1시간	61분~5시간	0분	1분~1시간	61분~14시간			
	248명 35.7%	346명 49.7%	81명 11.8%	270명 38.8%	257명 37%	146명 21%			
독서 선호도 (1095명 / 694명)	조사명	매우 좋아함	약간 좋아함	보통	약간 싫어함	매우 싫어함	종합		
							좋아함	보통	싫어함
	국민	11.6%	29.8%	34.7%	14.5%	9.2%	41.4%	34.7%	23.7%
S지역	11.8%	33.6%	29.7%	14.8%	10.1%	45.4%	29.7%	24.9%	
독서 장애 요인 (1095명 / 694명) *()는 순위	조사명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			교과 공부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		
	국민	27.3%			21.3%		18.8%		
	S지역	26.9%(2)			27.4%(1)		24.1%(3)		
	조사명	책 읽기가 싫어서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책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국민	17.0%		5.2%		4.6%		1.7%	
S지역	11.5%(4)		2.8%(6)		2.5%(7)		3.0%(5)		
독서의 유용성 (1095명 / 694명)	조사명	매우 도움	어느 정도 도움	보통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종합		
							도움	보통	도움 안됨
	국민	31.2%	49.0%	15.2%	3.1%	1.6%	80.1%	15.2%	4.7%
S지역	21.2%	48.4%	16.3%	11.0%	3.0%	69.6%	16.3%	14.0%	

2. 독서량과 책의 선택

우리나라의 경우, 종이책 독서량이 초(51.7권)·중(14.8권)·고(7.5권)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된다. 일본의 경우, 마이니치신문과 전국학교도서관 협의회(JSLA)가 실시한 학교 독서 조사(2021) 결과, 초·중·고 학생의 월평균 독서율은 초등 94%, 중등 90%, 고등 50%로 2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증가(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 245)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학생부터 급락하는 독서량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로 독서를 장려하고 있으며 ‘자유학년제’ 및 창의적 체험학습, 자율 동아리 등을 이용하여 독서 외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도록 하고 있다. 독서 시간이 있음에도 독서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S지역 중학생의 독서량은 2021년 14.8권에서 2022년 18.5권으로 독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0.1권에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일상화로 인하여 일상 회복에 따른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 지역 2022 중학생의 독서량과 독서 목적은 <표 4>와 같다.

<표 4> S지역 중학생의 독서량과 독서 목적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독서량	국민독서실태(1095명)			S지역 독서실태(695명)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14.8권	8.0권	0.7권	18.5권	6.2권	0.7권							
국민 종이책 독서량	2019년(985명)			2021년(1095명)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69.8권	20.1권	8.8권	51.7권	14.8권	7.5권							
독서 목적 (1006명 / 690명) *()는 순위	조사명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 읽는 것이 즐거워서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국민	25.2%		15.5%		12.0%		10.7%					
	S지역	25.2%(1)		22.3%(2)		6.2%(6)		9.0%(4)					
	조사명	학교 과제를 위해서		마음의 성장을 위해		진학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므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잘하기 위해서			
	국민	9.6%		8.1%		8.0%		6.1%		1.1%			
	S지역	12.8%(3)		6.8%(5)		3.0%(8)		9.0%(4)		0.9%(9)			
독서 선호 분야 (1006명 / 692명)	조사명	소설		연예, 스포츠, 취미, 여행		과학, 기술, 컴퓨터		역사, 지리		예술, 문화			
	국민	34.9%		14.2%		7.7%		6.6%		6.1%			
	S지역	62.0%		10.3%		4.8%		3.9%		3.6%			
	조사명	직업과 관련된 책		자기계발서		수필		시		정치, 사회, 시사		철학, 사상, 종교	
	국민	5.8%		5.2%		4.4%		3.0%		2.6%		2.5%	
	S지역	1.9%		1.6%		1.4%		1.3%		1.2%		1.2%	

독서 선호 분야의 경우 2021 독서실태조사와 순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서 선호 분야 중 소설(국민 34.9%, S지역 62.0%)에 차이를 보였다. 문학인 소설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한 정의적 영역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에 비추어 보면 긍정적이라 하겠지만 독서가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제의 독서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

독서 장소는 <표 5>와 같이 ‘집에서(61.9%)’, ‘교실(24.7%)’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서가 5.2%로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2021 독서실태조사와 차이가 없는 것(5.4%)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서는 독서 환경을 재정비하여 학교도서관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S지역 중학생의 2022 독서 장소와 독서 선호 분야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독서 계기 (1006명 / 688명) *()는 순위	조사명	스스로 읽고 싶어서	교과 공부에 필요해서	유튜브, SNS를 보고	부모님이 권해서
	국민	25.6%	14.2%	10.5%	8.3%	8.3%
	S지역	27.5%(1)	19.8%(2)	6.7%(6)	10.6%(4)	7.6%(5)
	조사명	학교 선생님이 권해서	드라마, 영화의 원작을 읽고 싶어서	인터넷 책 소개를 보고	친구가 권해서	도서관 행사에 참여하려고
	국민	8.2%	7.6%	4.4%	2.1%	1.3%
	S지역	12.2%(3)	6.3%(7)	2.8%(9)	1.9%(10)	0.3%(11)
독서 장소 (1006명 / 691명) *()는 순위	조사명	집에서	교실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음	학교도서관에서	
	국민	56.8%	17.9%	6.5%	5.4%	
	S지역	61.9%(1)	24.7%(2)	1.4%(5)	5.2%(3)	
	조사명	학교 밖 도서관에서	밖에서 이동할 때	서점에서	카페에서	
	국민	3.2%	4.6%	3.0%	1.9%	
	S지역	4.2%(4)	0.4%(6)	1.4%(5)	0.3%(7)	

3. 독서환경

S지역 중학생의 독서 대화는 국민독서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S지역 중학생도 ‘자주 안 하는 것(국민 59.8%, S지역 58.7%)’으로 나타났다.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독서 대화를 통해 정보를 선별·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여 생각하는 독서의 힘을 기르고 자신과 타인과 소통을 통해 능동적 독서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 중심의 토의·토론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독서’에 대한 대화가 생활화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과별로 독서 대화가 일상화되도록 교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질 높은 연수를 통하여 독서동아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S지역 중학생의 독서 권유 경우도 독서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학부모(국민 59.5%, S지역 56.5%)와 선생님(국민 58.8%, S지역 62.2%) 모두 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만 12세~14세)은 개인의 재능, 독서량, 취미의 개인차가 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이 있다(손정표, 2018, 68). 따라서 중학생 대상으로 독서 흥미 유발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독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중학생부터 시작되는 독서정체기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초등에서 중등으로 독서가 지속되도록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생의 독서 흥미 요인을 파악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로 나아가도록 단계별 독서 흥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생은 청소년 시기로, 전략적 독서기, 비판적 독서기, 종합적 독서기의 세 단계 중 전략적 독서기와 비판적 독서기에 해당한다. 중1~2는 전략적 독서기로 '목적 지향적 읽기'의 시기이며, 중3은 비판적 독서기로 '잠복된 의도 파악하기와 맥락 활용하기'의 시기임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중학생은 '목적에 따른 책 읽기와 비판하며 읽기' 중심의 독서를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독서 동기가 낮다 보니 발달 단계에 준하는 책 읽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천경록, 2020). 그러므로 학생의 독서 동기를 높여서 학생의 발달에 맞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독서 발달단계에 따른 독서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S지역 중학생의 독서 대화와 독서 권유, 독서 지도의 조사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S지역 중학생의 독서 대화·독서 권유·독서 지도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독서 대화 (1095명 / 687명)	조사명	매우 자주 함	자주 하는 편	보통 이다	별로 하지 않는 편	전혀 하지 않음	종합		
							자주 함	보통	자주 안함	
국민		3.8%	12.6%	23.8%	34.9%	25.0%	16.4%	23.8%	59.8%	
S지역	2.8%	12.8%	25.8%	38.6%	20.1%	15.6%	25.8%	58.7%		
부모님의 독서 권유 (1095명 / 692명)	조사명	적극 권함	대체로 권하는 편	보통 이다	별로 권하지 않는 편	전혀 권하지 않음	종합			
							권함	보통	권하지 않음	
	국민	22.2%	37.3%	20.8%	13.5%	6.2%	59.5%	20.8%	19.7%	
S지역	20.5%	36.0%	23.0%	14.5%	6.1%	56.5%	23.0%	20.6%		
선생님의 독서 권유 (1095명 / 691명)	조사명	적극 권함	대체로 권하는 편	보통 이다	별로 권하지 않는 편	전혀 권하지 않음	종합			
							권함	보통	권하지 않음	
	국민	20.1%	38.7%	29.7%	7.6%	3.9%	58.8%	29.7%	11.5%	
S지역	24.7%	37.5%	25.8%	9.0%	3.0%	62.2%	25.8%	12.0%		
독서지도 (1095명 / 1893명) [중복 응답] *()는 순위	조사명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		독서 토론회 및 발표		독후감 쓰기				
	국민	75.3%		35.6%		30.6%				
	S지역	15.8%(2)		15.8(2)		30.0%(1)				
	조사명	표절 예방 지도	독서를 통한 학습과제 해결하기		책의 선택과 읽는 방법		독서지도가 전혀 없었다			
	국민	29.2%	26.7%		24.5%		7.2%			
S지역	12.8%(3)	12.7%(4)		11.1%(5)		1.4%(6)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에서 도서관 이용률(88.7%)이 국민독서실태 조사(67.2%)보다 증가하였다. 방역이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따른 일상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학교인 D학교의 경우 가장 높았던 독서량(25권)에 맞게 이용률(93.3%)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A학교는 81.5%, 독서량이 16권으로 가장 낮았던 B학교는 87.5%, C학교는 92.3%로 나타났다. 그중 C학교의 경우

독서량에 비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이 '학교 과제'로 나타났다. S지역 중학생의 2022 중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S지역 중학생의 학교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 영역	조사 내용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국민독서실태(1095명)					S지역 독서실태(689명)			
	이용		비이용			이용		비이용	
	67.2%		32.8%			88.7%		11.3%	
S지역 학교별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A학교(168명)		B학교(176명)		C학교(181명)		D학교(164명)		
	이용	비이용	이용	비이용	이용	비이용	이용	비이용	
	81.5%	18.5%	87.5%	12.5%	92.3%	7.7%	93.3%	6.7%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736명 / 619명)	조사명	거의 매일	1주일 1~2번	한 달에 1~2번	한 학기에 1~2번	1년에 1~2번	종합		
							자주	보통	드물게 이용
	국민	8.6%	26.4%	27.6%	26.0%	11.5%	35%	27.6%	37.5%
	S지역	9.4%	29.7%	32.0%	20.0%	8.9%	39.1%	32.0%	28.9%
S지역 학교별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A학교	7.9%	27.3%	29.5%	20.1%	15.1%	35.2%	29.5%	35.2%
	B학교	11.6%	20.0%	34.8%	23.2%	10.3%	31.6%	34.8%	33.5%
	C학교	6.5%	37.6%	34.1%	16.5%	5.3%	44.1%	34.1%	21.8%
	D학교	11.6%	32.9%	29.0%	20.6%	5.8%	44.5%	29.0%	26.4%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 (736명 / 615명) *()는 순위	조사명	책 읽기	도서관 자료의 대출/반납		학교 공부, 숙제		도서관 분위기가 좋아서		
	국민	41.9%	19.6%		13.8%		9.9%		
	S지역	32.4%(1)	20.0%(3)		25.0%(2)		8.3%(4)		
	조사명	도서관 활용 수업	독서 프로그램 참여		독서 모임을 위해서		방과 후 교실		
국민	6.8%	1.5%		1.2%		0.4%			
	S지역	6.7%(5)	1.6%(7)		0.8%(8)		0.2%(9)		
학교도서관 이용 않는 이유 (359명 / 158명) *()는 순위	조사명	학교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서		도서관이 교실에서 너무 멀어서		도서관이 닫혀 있어서		
	국민	35.0%	24.4%		14.1%		3.6%		
	S지역	36.7%(1)	22.8%(3)		11.4%(4)		0.6%(6)		
	조사명	도서관 시설이 좋지 않아서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책을 빌려주지 않아서		독서지도를 해주시는 사서 선생님이 안 계셔서		
국민	2.5%	0.9%		0.2%		0.5%			
	S지역	0.6%(6)	0.6%(6)		1.3%(5)		0.5%(7)		

4. 독서 활동·독서 동아리 활동·〈한 학기 한 권 읽기〉 참여

참여한 독서 활동에서는 S지역 중학생의 경우 글쓰기 활동(국민 76.7%, S지역 38.6%), 그리기 활동(국민 21.0%, S지역 15.1%), 말하기 활동(국민 15.3%, S지역 9.9%), 독서퀴즈대회(국민 15.7%, S지역 7.4)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비교하여 S지역의 경우 글쓰기 활동(38.6%)이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독서 활동에 그리기 활동(14.2%), 독서퀴즈대회(13.7%), 말하기 활동(8.5%) 순 다음으로 글쓰기 활동(8.0%)이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중학생의 경우 글쓰기

활동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글쓰기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서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대체로 연간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 184). 따라서 스스로 독서량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흥미 유발요인을 찾아 접근할 필요가 있다. S지역 중학생의 독서 활동의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S지역 중학생의 독서 활동

조사 영역	조사 내용								
	참여한 독서 활동 (548명 / 1183명) [중복 응답] *()는 순위	조사명	글쓰기 활동	책 읽기 프로그램	그리기 활동	독서퀴즈 대회	말하기 활동	매체제작활동	
국민		76.7%	35.9%	21.0%	15.7%	15.3%	6.7%		
S지역		38.6%(1)	9.4%(4)	15.1%(2)	7.4%(5)	9.9%(3)	5.6%(6)		
조사명		강연회	독서 통장 만들기	전시 활동	독서캠프 프로그램	탐방활동	도서바자회, 책 모아 기증하기		
국민		5.4%	5.1%	4.7%	3.6%	1.5%	1.2%		
S지역	0.6%(11)	0.9%(10)	1.9%(7)	1.8%(8)	0.5%(12)	1.0%(9)			
독서 활동 만족도 (548명 / 650명)	조사명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종합		
	국민	13.1%	34.3%	46.2%	3.4%	2.9%	만족	보통	불만족
	S지역	11.7%	33.7%	41.2%	8.2%	5.2%	45.4%	41.2%	13.4%
독서 활동 비참여 이유 (443명 / 644명)	조사명	책 읽기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국민	42.4%	23.4%	15.7%	9.4%	5.8%			
	S지역	37.4%	18.6%	17.1%	16.3%	6.2%			
참여하고 싶은 독서 활동 (1095명 / 1348명) [중복 응답] *()는 순위	조사명	독서퀴즈 대회	그리기 활동	책 읽기 프로그램	도서바자회, 책 기증하기	글쓰기 활동	독서 캠프 프로그램		
	국민	26.4%	24.3%	18.0%	14.8%	14.2%	13.7%		
	S지역	13.7%(2)	14.2%(1)	6.6%(7)	7.8%(5)	8.0%(4)	5.8%(10)		
	조사명	탐방 활동	말하기 활동	강연회	매체 제작활동	전시 활동	독서통장 만들기		
	국민	13.7%	12.7%	11.9%	11.9%	11.0%	6.6%		
S지역	6.3%(8)	8.5%(3)	6.0%(9)	7.6%(6)	4.7%(12)	5.3%(11)			

중학생 독서동아리 분석 결과 독서동아리 비참여 비율(국민 86.8%, S지역 85.4%)이 높게 나타났다. S지역 학교도 마찬가지로 독서동아리 참여한 경험이 저조(14.6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독서동아리 역시 학교 독서동아리(36.6%)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 대화에 대한 결과와 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독서동아리를 희망한다. 학교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한다면 독서 대화가 증대되고, 자연스럽게 중학생의 독서량이 증가하여 의사소통 역량과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상 역량이 함양될 것이다. 비참여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는 '독서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독서 동기 프로

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의 '동아리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어서, 참여할만한 기회가 없어서'를 응답한 40.9%의 학생을 위해 독서동아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 커리큘럼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지역 중학생의 독서동아리 활동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S지역 중학생의 독서동아리 활동 조사 결과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독서동아리 참여	국민독서실태(1095명)			S지역 독서실태(687명)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13.2%		86.8%		14.6%	85.4%		
참여해본 독서동아리 (144명 / 126명) [중복응답] *()는 순위	조사명	학교 독서동아리	학교 밖 도서관 동아리	가족 독서동아리	온라인 독서동아리	동네 독서동아리	국민: 서점 독서동아리 S지역: 학원 과외 독서모임
	국민	73.3%	13.5%	11.4%	6.4%	4.1%	3.4%
	S지역	40.5%(1)	10.3%(3)	9.5%(4)	5.6%(5)	4.8%(6)	23.0%(2)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 (951명 / 606명) *()는 순위	조사명	독서에 관심이 없어서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어서	독서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	43.0%	17.1%	12.7%	12.4%	9.1%	
	S지역	44.4%(1)	12.7%(3)	16.2%(2)	12.0%(5)	12.2%(4)	
참여하고 싶은 독서동아리 (1095명 / 658명) *()는 순위	조사명	학교 독서동아리	온라인 독서동아리	가족 독서동아리	학교 밖 도서관 등 기관지원 동아리	국민: 서점 독서동아리 S지역: 학원 과외 독서모임	동네 독서동아리
	국민	43.4%	23.0%	12.6%	9.3%	9.0%	6.2%
	S지역	36.6%(1)	14.7%(3)	16.7%(2)	5.8%(7)	8.4%(5)	6.1%(6)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수업 경험(국민 63.2%, S지역 67.3%)이 60%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책 읽기에 미친 긍정적 영향(국민 36.8%, S지역 44.4%)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책 읽기가 싫어졌다(국민 8.9%, S지역 11.1%)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효과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시작되었으나, 중학교에서 진행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은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타났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자칫 획일화된 수업방식, 단조로운 교수학습을 진행하여 중학생의 독서 동기나 독서 흥미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독서 동기로 이어지는 독서 흥미의 요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학생 수준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취지에 맞게 능동적 읽기에 대한 교수학습을 연구하여 중학생의 읽기 능력을 향상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S지역 중학생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참여의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S지역 중학생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참여

조사 영역	조사 내용								
	국민독서실태(1095명)				S지역 독서실태(694명)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유무	있었음		없었음		있었음		없었음		
	63.2%		36.8%		67.3%		32.7%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종류 (693명 / 461명) *()는 순위	조사명	반 전체가 같은 책		학생마다 다른 책		모둠별로 다른 책			
	국민	35.2%		48.9%		15.8%			
	S지역	17.1%(2)		64.9%(1)		13.7%(3)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선정방법 (693명 / 462명) *()는 순위	조사명	선생님 정해 주셨다		스스로 정했다		선생님이 권한 책 중에서 선택했다		학생들끼리 의논해서 정했다	
	국민	41.4%		32.3%		19.7%		5.4%	
	S지역	16.5%(3)		58.2%(1)		18.6%(2)		3.5%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책 읽기에 미친 영향 (693명 / 459명)	조사명	매우 좋아 졌다	약간 좋아 졌다	보통 이다	약간 싫어 졌다	매우 싫어 졌다	종합		
	국민	10.0%	26.8%	53.9%	4.0%	4.9%	36.8%	53.9%	8.9%
	S지역	8.9%	35.5%	44.4%	5.0%	6.1%	44.4%	53.9%	11.1%

5.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

중학생의 코로나19 이후의 독서 생활 변화에서 특이한 점은 종이책 읽는 시간(국민 40.6%, 지역 45.2%)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독서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의 실제 독서 행동으로 조사에 응답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웹소설 읽는 시간(국민 27.7%, S지역 4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켜 읽기 영역에서 웹소설의 긍정적인 요소를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독서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독서 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중학생의 읽기 능력과 독서의 즐거움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선 웹소설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S지역 중학생의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는 〈표 11〉과 같다.

〈표 11〉 S지역 중학생의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

조사 내용(1095명/671명)	조사명	증가	변함없음	감소
종이책 읽는 시간	국민	40.6%	41.6%	17.5%
	S지역	45.2%	34.1%	20.7%
전자책 읽는 시간	국민	17.9%	65.5%	15.7%
	S지역	16.0%	69.4%	14.7%
웹소설 읽는 시간	국민	27.7%	58.0%	13.2%
	S지역	44.3%	45.0%	10.6%
읽은 책의 분량	국민	47.6%	36.1%	15.0%
	S지역	50.0%	36.3%	13.7%
인터넷 서점 이용 횟수	국민	35.0%	49.0%	15.6%
	S지역	36.9%	48.4%	14.6%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이용 횟수	국민	8.3%	66.2%	24.5%
	S지역	12.9%	68.8%	19.0%

6. 학교에 대한 희망 사항

S지역 중학교의 학교에 대한 희망사항으로 중학생의 경우 책 소개/ 정보 제공, 학급문고 확대 외에도 요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 조사에서 '책 소개/ 정보 제공'이 국민독서실태(2021)에서 보다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국민 43.1%, S지역 52.5%).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급에 학급문고를 만들어 독서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교실에서 학급문고를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급문고의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책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이 책에 대한 정보를 학교 도서관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북토크, 북큐레이션, 도서관 소식지를 통해 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을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지역 중학생의 학교에 대한 희망 사항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S지역 중학생의 학교에 대한 희망 사항

조사명 (1095명 / 691명)	학급문고 확대	책 소개/ 정보 제공	학교도서관 이용의 편리성	독서 시간 확대	다양한 독서 행사	독서 방법, 독후 활동 등 독서교육
국민	44.4%	43.1%	39.9%	34.5%	33.1%	29.8%
S지역	49.8%(2)	52.5%(1)	42.0%(5)	45.7%(3)	42.6%(4)	31.8%(6)

* '매우 필요'부터 '매우 불필요'까지의 5점 척도 응답 중 '필요'(매우 필요+약간 필요) 응답 비율만 제시

7.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 비교·분석 결과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중학생 부문 결과와 2022년 중학생 독서실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두 조사 결과에서 아래의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독서 생활 영역에서 독서 선호도, 독서의 유용성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독서량과 책의 선택 영역에서는 독서 계기, 독서 장소, 독서 선택 시 이용 정보, 도서 선택 시 도움을 받는 사람, 도서 입수 경로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환경 분야에서는 부모님의 책 읽어주기, 독서 대화, 부모님의 권유, 학교도서관 이용 안 하는 이유의 항목에서는 국민독서실태 결과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다. 독서 활동 영역에서도 독서 활동 비참여 이유, 독서동아리 참여,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 참여하고 싶은 독서동아리,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수업 유무, 도서 종류, 수업이 책 읽기에 미친 영향은 국민독서실태 결과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둘째, 두 조사 결과에서 아래의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과 책의 선택

영역에서 독서 선호, 독서 목적에서는 선호도 순위가 달랐으며, 독서 선호 분야에서는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보다 소설의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62.0%). 독서 환경 영역에서는 독서 지도,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학교도서관 이용 빈도, 학교도서관 이용 목적은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보다 순위 및 영향도에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 독서 활동, 독서동아리 활동, 〈한 학기 한 권 읽기〉 참여 영역에서 참여한 독서 활동, 독서 활동 만족도, 참여하고 싶은 독서 활동이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보다 순위와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독서 생활 변화에서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웹소설 읽는 시간과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이용 횟수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대한 희망 사항 영역에서는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 순위의 변동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 빈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독서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IV.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조사 분석

중학생의 성별, 학교, 학년에 따른 독서실태조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독서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독서실태조사

성별에 따른 독서실태조사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서생활영역에서 독서선호도, 독서장애요인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독서량과 책의 선택 영역에서는 독서의 계기,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 독서 분야 선호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독서환경 영역에서는 독서지도방법,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독서 대화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서활동·독서동아리 활동·한 학기 한 권 읽기 영역에서는 참여 독서 활동, 참여 독서활동 만족도, 독서활동 비참여 이유, 참여 희망 독서활동,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독서생활 변화 영역에서는 책 읽는 시간(종이책)에서, 학교에 대한 희망사항 영역에서는 독서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중 독서 선호도, 독서방해요인, 독서대화,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독서 선호도 차이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성별에 따른 독서 선호도 조사 결과

단위: 명(%)

성별	독서선호도					전체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싫음	많이 싫음	
남자	22 (4.2)	59 (11.2)	88 (16.7)	44 (8.3)	46 (8.7)	259 (49.1)
여자	38 (7.2)	110 (20.8)	72 (13.6)	34 (6.4)	15 (2.8)	269 (50.9)
종합	60 (11.4)	169 (32.0)	160 (30.3)	78 (14.8)	61 (11.6)	528 (100.0)

$\chi^2=38.118$ (df=4, p<.000)

남자의 경우 책을 좋아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81명(15.3%)이고 보통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88명(16.7%)이며 책을 싫어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90명(17.0%)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책을 좋아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148명(28.0%), 보통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72명(13.6%), 책을 싫어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49명(9.3%)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독서 선호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38.118 (p<.001)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독서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독서 대화 차이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성별에 따른 독서 대화 조사 결과

단위: 명(%)

성별	가족, 친구와 책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자주 하나					전체
	매우 자주	자주 하는 편	보통	별로 하지 않는 편	전혀 하지 않음	
남자	6 (1.1)	23 (4.4)	48 (9.2)	105 (20.1)	75 (14.3)	257 (49.1)
여자	11 (2.1)	38 (7.3)	74 (14.1)	103 (19.7)	40 (7.6)	266 (50.9)
종합	17 (3.3)	61 (11.7)	122 (23.3)	208 (39.8)	115 (22.0)	523 (100.0)

$\chi^2=21.223$ (df=4, p<.000)

남자의 경우 책 이야기를 자주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29명(5.5%)이고 보통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48명(9.2%)이며 책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사람이 180명(34.4%)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책 이야기를 자주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49명(9.4%)이고 보통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74명(14.1%)이며 책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사람이 143명(27.3%)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독서 대화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21.223 (p<.001)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독서 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학교별에 따른 독서실태조사

학교에 따라 독서 환경 영역에서 선생님의 독서 권유, 독서지도방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독서활동·독서동아리 활동·한 학기 한 권 읽기 영역에서는 참여 독서 활동, 참여 희망 독서활동,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참여,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종류,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선정 방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따른 독서지도방법은 <표 15>와 같다.

<표 15> 학교별 독서지도방법 분석(4개교)

단위: 명(%)

학교명	책의 선택과 읽는 방법	독후감 및 서평 쓰기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	독서토론 및 발표
A학교	42 (25.1)	141 (84.4)	83 (49.7)	84 (50.3)
B학교	60 (34.5)	146 (83.9)	95 (54.6)	70 (40.2)
C학교	59 (32.8)	148 (82.2)	54 (30.0)	60 (33.3)
D학교	49 (30.1)	132 (81.0)	67 (41.1)	85 (52.1)
종합	210	567	299	299

학교명	독서를 통한 학습과제 해결하기	저작권 교육 등	독서지도가 전혀 없었다	기타	종합
A학교	65 (38.9)	71 (42.5)	5 (3.0)	2 (1.2)	167
B학교	51 (29.3)	59 (33.9)	10 (5.7)	2 (1.1)	174
C학교	65 (36.1)	52 (28.9)	8 (4.4)	1 (0.6)	180
D학교	60 (36.8)	60 (36.8)	4 (2.5)	3 (1.8)	163
종합	241	242	27	8	684

모든 학교에서 독서 지도 방법 중 ‘독후감 및 서평 쓰기’를 81% 이상 받았다고 하고, 가장 많이 받은 독서 지도 중의 하나이다. A학교와 D학교에서는 독서 지도 방법 중 ‘독서토론 및 발표’를, B학교에서는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를, C학교에서는 ‘독서를 통한 학습과제 해결하기’를 그다음으로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 따른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참여 차이는 <표 16>과 같다.

<표 16> 학교에 따라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참여 조사 결과(4개교)

단위: 명(%)

학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무		전체
	이용	비이용	
A학교	95 (13.7)	73 (10.5)	168 (24.2)
B학교	113 (16.3)	65 (9.4)	178 (25.6)
C학교	159 (22.9)	23(3.3)	182 (26.2)
D학교	100 (14.4)	66 (9.5)	166 (23.9)
종합	467 (67.3)	227 (32.7)	694 (100.0)

$\chi^2=47.044$ (df=3, p<.000)

A학교의 경우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95명(13.7%), B학교의 경우 113명(16.3%)이고, C학교의 경우 159명(22.9%)이고, D학교의 경우 100명(14.4%)이다. 학교에 따른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47.044 ($p < .001$)로 나타나 학교에 따라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참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학년에 따른 독서실태조사

학년에 따라 독서 환경 영역에서 독서지도방법,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학교도서관 이용 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독서활동·독서동아리 활동·한 학기 한 권 읽기 영역에서는 참여 독서 활동, 참여 희망 독서활동, 한 학기 한 권 읽기 도서 선정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른 독서지도방법은 <표 17>과 같다.

<표 17> 학년별 독서지도방법 분석(4개교)

단위: 명(%)

학년	책의 선택과 읽는 방법	독후감 및 서평 쓰기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	독서토론 및 발표
1학년	84 (35.6)	188 (79.7)	146 (61.9)	86 (36.4)
2학년	70 (31.0)	196 (86.7)	99 (43.8)	112 (49.6)
3학년	56 (25.2)	183 (82.4)	54 (24.3)	101 (45.5)
종합	210	567	299	299

독서지도	독서를 통한 학습 과제 해결하기	저작권 교육 등	독서지도가 전혀 없었다	기타	종합
1학년	67 (28.4)	93 (39.4)	12 (5.1)	3 (1.3)	236
2학년	77 (34.1)	79 (35.0)	6 (2.7)	3 (1.3)	226
3학년	97 (43.7)	70 (31.5)	9 (4.1)	2 (0.9)	222
종합	241	242	27	8	684

전 학년에서 독서 지도 방법 중 '독후감 및 서평 쓰기'를 79% 이상 받았다. 1학년은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를, 2·3학년은 '독서토론 및 발표'를 그다음으로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전 학년에서 독서 지도 중 '독서 지도가 전혀 없었다'와 '기타'를 제외하고, 1학년은 '독서를 통한 학습과제 해결하기', 2학년은 '책의 선택과 읽는 방법', 3학년은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의 독서 지도를 받은 경험이 가장 적었다고 응답하였다.

학년에 따른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차이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학년에 따른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조사 결과(4개교)

단위: 명(%)

학년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		전체
	이용	비이용	
1학년	192 (27.9)	44 (6.4)	236 (34.3)
2학년	215 (31.2)	16 (2.3)	231 (33.5)
3학년	204 (29.6)	18 (2.6)	222 (32.2)
종합	611 (88.7)	78 (11.3)	689 (100.0)

$\chi^2=19.333$ (df=2, p<.000)

1학년의 경우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표현한 사람이 192명(27.9%)이고, 2학년의 경우 215명(31.2%)이고, 3학년의 경우 204명(29.6%)이다. 학년에 따른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χ^2 통계값은 19.333 (p<.001)로 나타나 학년에 따라 학교도서관 이용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년에 따라 참여 희망 독서 활동의 차이는 〈표 19〉와 같다.

〈표 19〉 학년에 따라 참여 희망 독서 활동 조사 결과(4개교)

단위: 명(%)

학년	책 읽기 프로그램	독서캠프 프로그램	독서 통장 만들기	독서 퀴즈 대회	글쓰기 활동	말하기 활동	그리기 활동
1학년	31 (13.2)	30 (12.8)	30 (12.8)	70 (29.8)	23 (9.8)	40 (17.0)	72 (30.6)
2학년	26 (11.5)	25 (11.1)	20 (8.8)	62 (27.4)	40 (17.7)	45 (19.9)	70 (31.0)
3학년	32 (15.4)	23 (11.1)	21 (10.1)	53 (25.5)	45 (21.6)	29 (13.9)	50 (24.0)
종합	89	78	71	185	108	114	192

독서활동 종류	매체 제작 활동	탐방 활동	강연회	독서 바자회, 책 모아 기증하기	전시 활동	기타	종합
1학년	40 (17.0)	35 (14.9)	24 (10.2)	40 (17.0)	20 (8.5)	21 (8.9)	235
2학년	35 (15.5)	25 (11.1)	27 (11.9)	34 (15.0)	23 (10.2)	31 (13.7)	226
3학년	28 (13.5)	25 (12.0)	30 (14.4)	31 (14.9)	20 (9.6)	22 (10.6)	208
종합	103	85	81	105	63	74	669

1·2학년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은 독서 활동은 '그리기 활동'으로 30.6% 이상, 3학년은 '독서 퀴즈 대회'로 25.5%가 참여하고 싶어 했다. 1·2학년에서 그다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독서 활동은 '독서 퀴즈 대회'가 있고, 3학년은 '그리기 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 전 학년에서 참가하고 싶은 독서 활동 중 '기타'를 제외하고, 1, 3학년에 비선호하는 활동은 '전시 활동'이고 2학년은 '독서 통장 만들기'이다.

V.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분석

국민독서실태조사(2021) 결과와 2022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량이 초등에 비해 너무 낮다(71.3% 급락). 특히 2022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도서관 이용률이 88.7%에 이르지만, 학생 독서량은 18.5권으로 이용률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독서량을 증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서 대화가 저조하고(58.7%), 독서동아리 참여율이 낮다(14.6%). 독서동아리 비참여 비율(국민 86.8%, S지역 85.4%)이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독서동아리 비참여 이유를 살펴보면, '독서에 관심이 없어서(44.4%)' 그 외에도 '독서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16.2%)',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어서(12.2%)', '참여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12.0%)'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참여하고 싶은 독서동아리로 학교 독서동아리가 36.6%로 나타난 것은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셋째,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이 책 읽기에 미친 영향이 44.4%로 나타났다.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36.8%)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서도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책읽기를 더 좋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중학교에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바이다.

넷째, 학교도서관이 학생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도서 선택 시 이용 정보에서 첫 번째가 서점, 도서관 등에서 책을 직접 보고 선택한다(40.5%)고 하는데,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읽을 만한 책이 별로 없어서(22.8%)'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의 요구에 맞는 장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에서의 장서 구성 및 도서 구입 시 수행하는 수서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 대한 희망 사항'에서 첫 번째로 '책 소개/정보 제공(52.5%)'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생과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학생이 원하는 장서와 상황에 맞는 독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고, 입수된 도서를 잘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독서 지도가 한 영역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 75.3%, S지역 독후감 및 서평쓰기 30.0%). 독서 지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인 '독서 토론회 및 발표(국민 35.6%, S지역 15.8%)', '독서를 통한 학습과제 해결하기(국민 26.7%, S지역 12.7%)', '책의 선택과 읽는 방법(국민 24.5%, S지역 11.1%)'이 낮게 나타났다.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서 독서 수준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여섯 번째, 학생의 독서 선호 분야가 편향되어 있다.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조사에서는 독서 선호 분야가 소설(국민 34.9%, S지역 62.0%)로 편향되게 나타났다. 독서 입문자의 경우, 독서의

본질인 즐거움과 자율성을 증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독서가 편향되지 않도록 독서는 다양한 주제의 통합적 독서로의 안내가 필요하다.

VI. 중학생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조사 결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중학생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독서량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독서 습관 기르기 프로그램, 상황별 독서상담 프로그램, 개인별 독서지도 프로그램, 도서 추천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중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 습관 기르기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이 프로그램은 독서 장애 요인에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24.1%), 책 읽기가 싫어서(11.5%)'라고 응답한 학생과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대상은 활자로 된 긴 글을 읽기를 어려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실용서(그림 그리기, 정리정돈, 글씨 쓰기, 앱 만들기, 촬영하기 등등)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혀서 지식을 쌓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상황별 독서 상담 프로그램', 폭풍 성장을 돕는 '개인별 독서 지도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북트레일러, 북토크, 추천 도서 목록)을 활용한 '도서 추천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서 및 사서교사가 '책 읽는 방법 지도'하여 '책 읽기를 싫어하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독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작가와와의 만남', '문학 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한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 평생교육기관에 제공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도서관이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독서에 대한 장벽을 깨뜨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창의적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독서마케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관심 있는 주제에 접근하고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활용 교육이 요구된다. 이는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24.1%), 책 읽기가 싫어서(11.5%)'라고 설문에 응답한 학생에게는 독서 동기 유발의 기회가 될 것이며 '책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학생(1.7%)'에는 '개인별 독서 지도 프로그램' 통하여 문해력을 키워 독서량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주제의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독서법(고전 읽기, 낭독 독서법, 말하기 독서법, 메모 독서법, 본캐적, 입체 독서법, 정약용의 초서 독서법, 하브루타 독서법 등)을 활용한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여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또한 관심별, 도서별, 시기별, 장르별, 주제별, 진로별, 활동별, 대면·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독서동아리를 계획하고 주체는

1) <https://www.bookmagic.kr/bookMagic/menu/talk/bookReviewList.do> 경기도도서관 북매직 사서들의 월간 추천도서 & <https://reading.gglec.go.kr/r/newReading/intro/dlsPdsForm.jsp> 월별 DLS독서서평단 추천도서

학생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학기 초, 달마다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독서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학교 교육과정(자유동아리, 창체동아리, 주제 선택 수업, 자유학년제)에서 독서동아리와 결합하면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독서동아리 활동을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읽은 책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독서 대화가 저조한 것이므로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같은 도서를 읽은 학생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공지해 주고, 동아리 운영 홍보 및 게시를 통하여 그 시간에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든지 도서를 지원하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도서관 공간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중학교에 있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021 국민독서 실태조사에서 초등의 경우,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77.0% 참여하였고, 도움 정도가 50.1%가 나타났으나 중등에서는 63.2%가 참여하여 36.8%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작된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은 '온작품 읽기'에서 파생되었다. 작품 하나를 온전히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중학교에서 실천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은 독서 기록에 치중되어 있으며 수행 평가 및 생활기록부에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온작품 읽기'는 이보다 더 많은 사고와 활동이 요구된다. 사서교사와 함께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사서교사와의 협력 수업을 권장한다. 이를 위해 사서교사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한 다양한 협력 수업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전문성을 신장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도서관과 학생과의 소통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과의 소통 방안으로는 책 소개, 구입희망도서 보완 방법, 독서 자료 선택 지도가 있다. 학생은 '읽을 책이 없어서(2.8%)'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 원하는 장서를 구비하여 독서상담을 통해 적서를 선택하도록 하고 독서 능력에 맞게 책 소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소식지, 독서 방송, 북트레일러, 북큐레이션, 북토크 등을 학교도서관에서 일상화하여 학생과 소통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여 'AI 맞춤형 도서 추천 기기'를 확보해서 학생의 성향에 맞는 도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구입희망도서' 신청 시,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학생의 희망도서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편안하게 시간을 내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 필요하다. 고전, 명작, 스테디셀러로 양서만 강요하지 않고 학생의 독서 수준에 맞는 학생 맞춤형 도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독서 자료 선택 지도'를 실시하여 양서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수업도 필요해 보인다. 독서 자료 선택 도구(종합목록, 선정 도서 목록 및

해제서, 서평집, 서점 및 추천 도서, 수록 도서 등)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협력하여 메타버스(가상현실)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바로 연결 되도록 하여 학교도서관에서 찾지 못하는 정보나 책을 공공도서관에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학생에게 적서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자의 청소년 책을 읽는 시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자가 1인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도서 추천이나 책 소개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다섯째, 중학생 대상의 독창적인 독서지도, 독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21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에서 독서지도는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75.3%)에 치우쳐 있다. 다양한 독서지도 방법이 있음에도 중학생이 받은 독서지도에 과반 이상이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분류(75.3%)'인 것은 그만큼 독서지도가 다양하지 못함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황금숙, 김수경, 장지숙, 2011)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의 예산은 학교 도서관 시설 확충까지 모두 포함되어 예산의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받으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 외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소수 학교가 아니라 다수 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에서 학생에게 식상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함은 물론이다.

Ⅷ.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첫째, 국민독서실태조사(2021)를 분석하고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S지역 4개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국민독서실태조사(2021)와 S지역 중학생의 독서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학생의 독서량 증대 방안, 둘째, 독서동아리 활성화 방안, 셋째, <한 학기 한 권 읽기> 보완 방안, 넷째, 학교도서관과 학생과 소통 방안 모색, 다섯째, 다양한 독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의 독서 대화와 독서량 증대를 위해서, 학생 중심의 독서동아리를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독서동아리가 독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독서동아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독서동아리와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연구 등이다. 둘째, 남학

생과 여학생의 독서 선호에 대한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남학생 독서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중학생의 자발적 독서 동기 부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독서 흥미의 내면적 요인, 외면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 독서 동기, 자발적 동기 부여 관련 독서프로그램 연구 등이 필요하다. 넷째,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의 효과성 연구를 재검증하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재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웹소설을 통한 독서와 읽기에 대한 적용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S지역 중학생 독서실태 조사 결과, 웹소설 분야 독서량이 이전보다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독서의 본질인 '읽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웹소설을 이용한 독서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 권은경 (2012). 독서 태도와 읽기 성취도 분석이 시사하는 학교도서관 독서교육의 방향: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49-269.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19-2023).
-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 박미진 (2019). 자기 표현력 개발을 위한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 북매직. 출처: <https://www.bookmagic.kr/bookMagic/menu/talk/bookReviewList.do>
- 손정표 (2018). 신독서교육방법론. 대구: 태일사.
- 안중덕 (2012). 독서교육 활성화 시범학교 경험에 따른 중학생의 독서 활동 분석. 인지발달중재학회지, 3(1), 147-163.
- 장소영 (2019). 청소년으로서 중학생 독자의 자기 선택적 독서 양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 전은숙 (2010). 독서실태 조사를 통한 학교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 방안 연구: 의정부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정옥년 (2007). 독서의 정의적 영역과 독자 발달. 독서연구, 17, 139-180.
- 정정애 (2004).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천경록 (2020). 독서 발달과 독자 발달의 단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5(3), 313-340.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015-74호.
- 황금숙, 김수경, 장지숙 (2011).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277-308. <https://doi.org/10.4275/KSLIS.2011.45.2.277>

DLS. 출처: <https://reading.gglec.go.kr/r/newReading/intro/dlsPdsForm.jsp>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Joong deok (2012). Reading activities in the middle schools: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pilot schools for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Cognitive Development Arbitration*, 3(1), 147-163.
- Bookmagic. Available: <https://www.bookmagic.kr/bookMagic/menu/talk/bookReviewList.do>
- Cheon, Gyeongrok (2020). Revisiting the stages of reading and reader develop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5(3), 313-340.
- DLS. Available: <https://reading.gglec.go.kr/r/newReading/intro/dlsPdsForm.jsp>
-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No.2015-74.
- Hoang, Gum-Sook, Kim, Soo Kyoung, & Jang, Jisuk (2011). A study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for children & young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277-308.
<https://doi.org/10.4275/KSLIS.2011.45.2.277>
- Jang, So Young (2019). A Study on the Self-selective Reading Pattern of Middle School Students as Adolescent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Korea.
- Jeon, Eun Suk (2010). Study for Improving the School's Reading Environment through the Research for the Students' State of Reading.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Korea.
- Jung, Jung-Ae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ce.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orea.
- Jung, OK Ryun (2007). The affective domain of reading and the development of reader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17, 139-180.
-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The third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2019-2023).
-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A National Reading Survey.
- Kwon, Eun-Kyung (2012). Reading education at school libraries: new consider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their reading achievements.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4권 제1호)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249-269.

<https://doi.org/10.16981/KLISS.43.4.201212.249>

Park, Mi Jin (2019). A Study on the Adolescent Reading Program for Self-expression Development.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Korea.

Son, Jung-pyo (2018). New Reading Education Methodology. Dae-gu: TAEILSA.